

마음 열기

찬송가 309장을 함께 부르시다.

나는 바이블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나누어 주세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12장 1-7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1절). 하나님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백성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2-3절). 하나님은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곳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파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가 막히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상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우상은 돈이나 명예, 혹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우상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면 내가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결국 걸모습만 남고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끊어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우선 순위로 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5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을 사모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복 주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물과 십일조, 제사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6-7절). 이 드리는 것은 오늘날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건강과 물질, 직장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예물과 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감사의 제물들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라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감사의 제물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나는 예배의 자리(주일,수요,민족제단,새벽, 패밀리 등)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나요?
2.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3. 내가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나요? 각자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3. 정해진 제단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따르기 힘든 규칙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율법과 복음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 단짝과 같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방종”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유가 ‘나의 행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방종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복음의 능력을 파괴하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보며,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율법의 마침표(완성)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먼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집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 삶」, 생명의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1월 18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신명기 12장 1-7절

